

전설의 정체성 재고와 연구방법 모색*

오세정**

【 차 례 】

- I. 서론
- II. 관계 체계를 통해 본 전설의 정체성
- III. 전설의 지역성 탐색을 위한 방법론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의는 구비서사 갈래인 전설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연구 방향·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설의 정체성은 그것과 관련된 체계들을 통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전설의 상위 체계의 관계들을 통해 전설의 주요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전설의 상위 체계인 구비문학은 기록문학과 관계 체계를 형성하면서 국문학이라는 시스템을 형성하며, 여기에서 구비문학은 주로 통시적 관점에서 규정되었다. 공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구비문학은 기록문학에 비해 비분화되어 있으며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권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설은 관계 체계 내 주변부·비주류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설의 연구 영역에서 연구의 주된 대상들이 전설의 정체성이나 본령에서 벗어난 것이 선택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전설 연구는 전설의 본령이나 그 정체성과 오히려 유리되어 왔다.

전설은 다른 문학 갈래와 구분되는 정체성, 즉 뚜렷한 자기 지시성의 제한성을 가진다. 전설의 유표적 자질은 한 마디로 지역성이다. 전설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온 구체적 공간을 점유한 사람들이 증거물을 중심으로 형성·전승한 이야기이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6404).

** 충북대학교

따라서 지역 전설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전설의 정체성을 토대로 그 방향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논의에서는 전설 텍스트 분석을 위해 지역성을 먼저 전제하지 않고, 지역별 비교를 통해 전설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의 의미화 방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 분석 사례로 충북 음성지역의 효행전설을 대상으로 하여 예시하였다. 전설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순한 텍스트로 보기 쉽지만, 전설을 형성하고 전승해 온 지역민들에게는 그 텍스트를 통해 자신들과 지역에 대한 의미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약호인 것이다.

열쇠어 : 전설, 지역성, 구비문학, 설화, 의소, 자가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약호, 음성군, 효행전설

I. 서론

본 논의는 전설(傳說)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전설은 글이 아닌 말로 전승되는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서사 갈래 중 하나이다. 흔히 구비문학의 서사 갈래를 설화(說話)로 통칭하며, 이것의 하위 갈래로 신화(神話), 전설(傳說), 민담(民譚)이 있다. 이 3분류 체계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서구를 비롯한 문학 연구의 선발주자나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 모두에게 통용되고 있다.

전설을 포함하여 구비문학은 기록문학에 비해 그 연원이나 역사가 훨씬 장구하고 전승과 향유의 담당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은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애초에 문학이 문자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이나 문학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확대와 다변화, 문학 연구의 대상과 맥락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구비문학 연구는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문학 제 영역에서 설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설화 연구는 문학 연구자들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오늘날 신생 학문분과 영역인 문화콘텐츠·문학치료·한국문화교육 등에서 설화가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신화나 민담에 비해 전설의

상황은 이러한 설화 연구의 경향과 분명하게 이질적이다.

본 논의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기인하며,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되짚어 보려한다. 즉, 전설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전설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방법론을 기획하고자 한다. 다른 갈래와 달리 전설에 대한 연구가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도 못한 것은 전설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접하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연구 대상의 정체성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본 논의는 전설의 정체와 의미를 전설과 관련된 관계 체계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관계, 중심과 주변의 관계, 특히 설화 내 하위 갈래 간의 관계를 통해 전설의 정체성을 살필 것이다. 전설에 대한 연구의 방향과 방법이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설화 연구방법론으로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기호학적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기획을 진행할 것이다.

II. 관계 체계를 통해 본 전설의 정체성

1. ‘기록문학 : 구비문학’의 관계 체계

한국문학 내지 한국문학 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는 문학을 매체에 따라 3분할이 가능하다. 우선, 매체가 말이나, 글이나에 따라 ‘구술문학’와 ‘기록문학’의 관계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자국어인 한글이 창제되고 유포되기 이전에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 와 문자 활동을 하였다. 한글의 등장에 따라 기록문학은 다시 ‘한문문학’과 ‘한글문학’의 양상 체계가 이루어졌다.¹⁾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학은 문자를 전제로 한다.

1) 크게 보면 한글 창제(1443년) 이전의 문자 활동과 한글 창제 이후의 문자활동으로 양

문학(literature)의 어원이 ‘문자(letter)’에 기인한다는 점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보면 말로 형성되고 전승(傳承)된 것, 즉 구술전승(口述傳承)은 문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 서구의 여러 나라나 주변의 일본에서는 구술 전승을 문학의 영역이 아닌 민속학이나 인류학의 영역에서 다룬다.²⁾

한국문학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근대 학문체계가 성립된 이후이다. 해방 이후 ‘국학(國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가 자리를 잡았고, 국문학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체계를 형성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고전문학(고전시, 고전소설, 한문학)이 국문학과에 자리를 잡은 것에 비해, 구비문학은 그보다 한참 뒤쳐졌다.³⁾ 국문학의 안정적인 체계 수립 이후 구비문학은 국문학 영역에서 발생한 새로운 수요에 의해 그 위상과 의미가 새롭게 인식된 것이다. 한국은 근대 국민국가 수립 이후 문학의 전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록문학 텍스트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민족적인 것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구비문학에 대한 소용을 키웠다. 근대 국민국가에 걸맞은 자국 국문학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문학의 공시적·통시적 외연 확장, 동아시아적 보편주의와 맞설 수 있는 민족적인 전통과 가치 추구 등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이 시기 한국에서 구비문학은 민속학 분과보다는 국문학 분과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⁴⁾

분할 수 있겠으나, 중국의 문자를 빌려 와 사용하던 시기에도 우리의 언어 체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고안한 노력이 있었다. 이두(吏讀), 향찰(鄉札)과 같은 표기법은 정확히 말해서 중국의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형태의 고유한 우리 문자는 한글이기 때문에 크게 보자면 한문과 한글로 구분할 수 있다.

- 2) 한국에서도 국문학계에서는 ‘구비문학’이라 칭하며 구술전승 문예물들을 문학으로 간주하고, 민속학계에서는 ‘민속문학’이라고 하여 민간 문화의 하위 대상으로 간주한다.
- 3) 197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구비문학이 하나의 연구 대상이자 전공 개념이 되었다. 본격적인 구비문학개론서는 장덕순에 의해 편찬되었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문학의 어원에서도 확인되듯이 문자화되지 않는 문학행위는 있을 수 없다. 문자화된다는 것은 표현 매체와 관련하여 특정한 구조와 형식을 가진다는 것이며, 그것에서 미감(美感)을 느끼는 것이 바로 문학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문자보다 말이 선행한다. 따라서 문자로 된 문학이 있기 이전에 말로 된 ‘문학적인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면서, 구비문학은 기록문학의 ‘전신(前身)’으로서 혹은 ‘고형’·‘원형’으로서 의미를 주요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국문학의 하위 분과 분류의 기준은 ‘시간’과 ‘형식’이다. 다시 말해, ‘고전문학’ : ‘현대문학’, ‘산문’ : ‘운문’ : ‘극(연행)’의 체계가 수립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구비문학은 경우 이 같은 기준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보면 구비문학은 이야기 갈래인 설화, 노래 갈래인 민요, 극 갈래인 탈춤이나 인형극과 같은 하위 갈래를 가진다. 다시 말해 문학의 대표적 형식인 산문·운문·극의 모든 갈래를 갖추고 있다.

통시적 측면을 고려하면 구비문학의 이질성은 더욱 부각된다. 구비문학은 문자 이전의 문학활동이라는 면에서는 고전문학이지만, 한문이나 한글의 문자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을 이용한 문학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구비문학은 현대문학이기도 하다. 현재 국문학계와 교육부에서는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입(口)’과 ‘비석(碑)’에 해당하는 한자어의 합성어인데, 전자는 구술전승(口述傳承)되는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자는 시간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다. 비석이 의미하는 바, “대대로 전하여 온”이라는 의미가 결합하면서 지금 생겨난 것은 배제되

4) 삼국시대와 그 이전 문학 자료가 부족한 국문학계에서 신화, 전설, 민담, 서사무가(敍事巫歌)와 같은 구비 서사문학을 통해서 문학의 고형 내지 원형을 찾고자 하는 논의가 7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판소리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 특히 민중문예의 성격과 국민문학의 성격을 띤 것으로 그 가치와 위상이 높이 평가되었다.

며 특정한 시간대, 즉 과거에 생겨나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만을 지시하게 된 것이다. 구비문학에 대한 이 같은 의미규정으로 인해 현대의 문학이 아니라 과거의 문학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⁵⁾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구비문학은 실상 국문학의 영토 내 시스템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로 철저히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비문학은, 한문문학이 갖는 비주체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에서 탈피하고, 한국적인 것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한국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문학 영역에 포섭되었다. 하지만 구비문학이 갖는 변별적 자질 내지 구비문학의 정체성은 근대에 수립된 한문문학의 시스템 속에 정위(定位)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구비문학을 고전문학으로 위치시킨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구비문학은 문학사에 있어서 고대의 문학, 문자 활동 이전의 문학이라는 시간상 순서에 의해 정체와 의미가 결정된 것이다. 공시적 관점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 없이 통시적 관점에서 규정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구비문학은 기록문학이라는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비분화(非分化)된 형태인 ‘구비문학’의 지위로서 고전문학의 하위 요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비문학의 공시적 성격은 무시되어 다양한 하위 갈래나 유형의 독자성은 쉽게 간과되고 묵살되었다.

5) 대부분의 학교와 교육부와 같은 공식 정부기관이 작성한 학문 분류 체계에서 ‘구비문학’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구비’의 이념적 지향성에 동의하지 않고, 말 그대로 ‘기록’ 내지 ‘기술(記述)’과의 관계 체계를 중시하는 입장은 ‘구술(口述)문학’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구비문학’의 영어 표현이 ‘oral literature’이고, 구어(口語)적인 것에 해당하는 orality를 ‘구비성(口碑性)’이라고 하지 않고 ‘구술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확하듯이, 말로 된 문학이라는 기본 성격을 드러내기에는 구술문학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이 용어는 “대대로 전승된”이라는 시간성과 관련된 이념성을 배제한다. ‘구술문학’이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로 송효섭이 있다. 그는 ‘구비문학’과 ‘구술문학’의 의미체계를 각각 ‘전승성과 고정성’ 대 ‘연행성과 가변성’으로 파악하였다. (송효섭, 「구술문학과 기호학」, 『구비문학연구』13, 한국구비문학회, 2001, 1쪽.)

2. ‘중심 : 주변’의 관계 체계

구비문학은 그것을 포함한 상위 시스템과 이질적이며 동시에 주변부에 존재한다. 문학의 영역, 문학 연구의 영역에서 중심과 대립의 관계 체계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주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근대를 넘어서면서, 정확히 말해 근대를 넘어서고자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주된 문화적 경향은 ‘중심에서 벗어나기’ 혹은 ‘주변부 다시 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라보는 대상 혹은 알고자 하는 대상을 단순히 교체한다는 의미로 제한되지 않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는 혹은 아는 방식에서의 전통적·독점적 권위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맥락과 배경 속에서 ‘소수자 문학’ 혹은 ‘소수집단 문학’이란 용어도 문학 연구 영역에서 흥기한 새로운 개념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 문학은 ‘minority literature’, 즉 다수와 대립되는 소수의 문학을 의미하는데, 서구에서는 현대사회 소수자의 대명사가 동성애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학을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 특히 미국과 같은 인종·민족·종교·언어가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방 국가의 경우, 소수자 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문학 연구 영역에서, 특히 고전문학 연구 영역에 있어서 소수자 문학은 여성문학, 방외인(方外人)문학, 종인문학 등의 비주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과거 우리 사회는 계급 사회였고, 따라서 문학에 대한 평가나 의미부여에 있어서 작가가 어느 계층·계급에 속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당연히 전근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진행된 문학활동은 작가군의 성격에 따라 중심 내지 주류, 주변 내지 비주류 갈래가 나뉘지는 결과를 낳았다. 상층의 언어로 상층이 지향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갈래가 있는가 하면 비(非)상층 혹은 하층의 언어로 자신들의 삶을 그려낸 것도 존재하게 된 것이다.

6) 한기옥, 「세계문학의 쌍방향성과 미국 소수자문학의 활력」, 『창작과 비평』139호, 2008. 정진농 편, 『미국 소수민족문학: 중심에서 주변으로』, 동인, 2010.

문학 활동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설정된다. 이는 ‘작자’와 ‘독자’의 관계로, 혹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로 대칭되기도 한다. 현대문학과 달리 고전문학에서는 이러한 두 체계의 주체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향유자’, ‘전승자’와 같은 문학의 주체를 설정하기도 한다. 소수자 문학은 이 주체의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작자나 향유자·전승자가 소수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말 그대로 한 사회의 인적 구성에서 소수인 집단에 의한 문학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국가 내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 이민자 집단 등의 문학이 그러하다. 그런데 작자 혹은 생산자는 소수인데 그 반대편이 다수인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집단이나 계층에서 생산된 문학이 범위를 넓혀 수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고전문학의 경우, 판소리가 그러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학 활동에 있어서 주체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양적 측면이 아니라 영향력이나 집단의 대표성의 측면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예컨대 조선시대 사대부들에 의해 독점되는 문학활동은 그 인적 구성원의 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그 권위나 대표성은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자 문학을 논할 때 많은 연구자들은 수적 소수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김홍규는 소수자 문학을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구도 속에서 주류 집단의 지배적 문화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집단의 문학’⁷⁾이라는 질적 측면, 권력의 측면을 고려한 정의를 내세웠다. 특히 고전문학 연구는 집단 간의 우위와 열위의 관계 내지 신분상·하층의 위계 관계가 오늘날과 달리 아주 뚜렷한 신분제 사회의 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집단 내 수적 우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7) 김홍규, 「소수집단 문학과 한국문학사의 전망」,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6~7쪽.

이상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문학 활동에서 주체의 측면은 ‘다수/주류’의 대립항인 ‘소수/비주류’⁸⁾가 일단 소수의 문학 내지 소수자 문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체의 성격에 있어서도 양적 측면의 ‘다수 : 소수’의 대립보다는 실제 권력적 측면의 ‘주류 : 비주류’가 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고전문학의 경우, ‘여성 문학’은 대표적인 소수자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전근대 시기 ‘남성 : 여성’이라는 젠더의 양항 체계는 주체와 타자,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으로 충분히 치환 가능하기 때문이다.⁹⁾

문학활동에서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가 아닌 문학 내적 영토 내에서의 ‘다수/주류’의 대립항인 ‘소수/비주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주체가 소수인 문학이 아니라, 문학 내적 체계에서 권력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혹은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를 상정할 수 있다. 문학은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다양한 갈래나 유형이 생성·소멸·공존해 왔다. 문학이라는 범주 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주류 : 비주류’의 대립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문학의 총체와 그 흐름을 ‘비문자(구술)’, ‘한문’, ‘한글’의 세 가지 매체로 표시할 수 있다. 한국의 고전문학사는 구술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기록문학은 한자표기

8) 이 주체의 성격에 있어서도 양적 측면의 다수 : 소수의 대립보다는 실제 권력적 측면의 주류 : 비주류가 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고전문학의 경우 ‘여성 문학’은 대표적인 소수자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전근대 시기 남성 : 여성의 젠더의 양항 체계는 철저히 주체와 타자,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으로 치환가능하기 때문이다.

9) 소수자 문학에 대한 시각은 인류학이나 민속학의 관점에서 주변부를 바라보던 관점처럼 소외된 것들을 조명한다는 입장과, 이보다 훨씬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중심에 반하는 주변부의 저항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영미권에서는 주로 전자의 시각이 강하다면, 다른 유럽지역에서는 후자의 성격이 부각된다. 가령 스페인의 바스크 문학은 스페인의 “소수라는 양적인 의미보다는, 지배, 중심, 주류 문화에 반대되는 운동을 의미한다. 가스피아가 권력을 가진 억압하는 주체로서 제도와 장치를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자체라면, 바스크 문화는 주변부로 제도나 장치와 같은 권력을 소유하지 않으며 다수성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노력”으로 보았다. (나송주, 「바스크 문학과 소수문학」, 『세계문화비교연구』10, 세계문화비교학회, 2004, 41쪽.) 한국의 고전문학 연구에서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 주체의 문학을 연구한 많은 경우가 이러한 저항적 의미를 젠더와 관련시키고 있다.

문학에서 한글표기 문학으로 전개되는 방향성을 띤다.¹⁰⁾ 결국 특정 시대마다 ‘다수/주류 : 소수/비주류’의 대립체계가 표현 매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범위를 좁혀 보면, 구비문학의 영역 내에서도 ‘다수/주류 : 소수/비주류’의 대립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구비문학 연구 영역에서는 구비문학의 하위 갈래로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로 설정한다.¹¹⁾ 여기에서 ‘설화’는 구비서사 갈래인데, 이는 다시 ‘신화’, ‘전설’, ‘민담’의 하위 갈래로 나뉜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한국민속문학사전』¹²⁾에 따르면 신화, 전설, 민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신화(神話): “전승집단이 신성시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 또는 더욱 보편적 상징으로 인류의 공통된 심층의식(집단무의식)에서 발로된 원형상징의 이야기”
- 전설(傳說): “특정 시공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믿어지면서 증거물과 함께 널리 구전되어 온 설화의 한 갈래”
- 민담(民譚): “인격을 지닌 주인공을 중심으로 특정한 시공(時空)에 얽매이지 않는 민간전승의 비사실적인 설화”

위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신화는 상당히 정교하게 개념 규정이 이루어져 있다. ‘신성(神性)’, ‘기원과 유래’, ‘원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야기가 신화이다. 반면 신화와 달리 전설과 민담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상대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전설과 민담의 대립체계는 ‘특정 시공간 : 불특정 시공간’, ‘실재/증거물 : 비사실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구비

10)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11, 22~27쪽.

11) 장덕순 외, 앞의 책. 초기의 이 분류 이후, 논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2) 편집위원회, 『한국민속문학사전』1·2, 국립민속박물관, 2012. ‘신화’, ‘전설’, ‘민담’ 항목.

설화라는 시스템 속에서 전설의 정체성은 사실성(역사성) 내지 실재성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신화가 뮈토스(mythos)로서, 여기에 더해 원형(archetype) 혹은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의 성격과 위상을 갖게 됨에 따라 문학뿐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기원 내지 고형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민담은 허구성을 본질로 하며, ‘인물’, ‘배경’, ‘사건’으로 구성된 이야기라는 가장 문학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설은 문학과 대립 체계에 있는 ‘역사’나 ‘비문학’ 쪽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되고 만다.¹³⁾ 결국 전설은 (구비)문학의 경계 안에 포함은 되었지만, 그 독자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문학 갈래로서, 문학 텍스트로서의 전설이 갖는 주변부의 성격은 전설 연구 영역에 있어서도 관련되어 나타난다. 설화 연구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주된 전설 텍스트는 이른바 ‘광포(廣布)전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같은 줄거리를 지니면서 각편(version)의 분포가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된 전설들로, <장자뚝>, <오누이힘내기>, <아기장수>, <용소>, <용싸움> 등이 그 예이다.¹⁴⁾ 전설은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증거물을 가진 이야기인데 전국적 분포를 보인다는 것은 이야기가 영향력을 가지고 전파되었거나,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사유를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신화적 사유와 상당한 유사성을 띤다. 신화가 전승집단의 근원적 사유방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신화가 포착하는 유래나 기원이 전승집단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전

13) 전설의 어원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legere(읽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원래 예배 중에 낭독되는 성인(聖人)이나 순교자의 이야기였다. 이것이 점차 사실(史實)이라고 믿어지는 이야기가 됨에 따라 특정한 때와 장소, 주인공의 사건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된 것이다. 북구어권의 ‘saga’는 영웅전설을 의미하는 고어로, 독일의 ‘saga’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사건의 계승설화로 수용되었다. (최인학, 「한국전설의 유형과 motif의 연구」, 『한국학연구』 1, 인하대학 한국학연구소, 1989, 74쪽.)

14) 『한국민속문학사전』, 앞의 책, 「광포전설」 항목.

설의 특성을 유지한 채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특정한 배경과 출처가 뚜렷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자와 같은 고정적인 매체가 아닌 말로써 전파된다면 결코 실체가 보존·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널리 알려진 광포전설인 <아기장수> 설화를 보자. <아기장수> 설화는 영웅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은신하고 숨었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이야기 유형과 미처 은신하기 전에 죽는 이야기 유형으로 양분할 수 있다. 천혜숙은 <아기장수> 설화를 ‘어머니의 잘못으로 실패한 영웅’과 ‘날개 달린 아기장수와 용마’의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신이한 재주를 가진 아이가 관군을 피해 숨어 있다가 어머니의 실수로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며, 후자는 신이한 조짐이 있는 아이를 죽이자 용마가 용소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이다. 다른 연구에서 이 설화의 유형은 유사하게 구분되는데, 강유리는 전자를 은신형, 후자를 날개형으로 구분하였다.¹⁵⁾

그런데 실제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전하는 이 설화의 각편들은 후자보다 전자가 많다. 전자가 이야기 앞뒤에 각각 지명유래(용마 바위, 용마봉, 용마산, 용천 등)나 명당에 관한 이야기가 부기되어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구체적 지명이나 증거물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설을 시공간과 증거물의 유무로 판별할 때, 전자는 특정 지역과 증거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후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 같은 사실은 아기장수 이야기가 유명세를 타서 해당 지역을 넘어서까지 전파되었고, 점차 이야기가 지역성과 증거물을 상실하고 허구화된 것을 의미한다.¹⁶⁾ 다시 말해 전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아

15) 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13, 1986, 135~136쪽; 강유리, 「<아기장수> 설화 연구-이데올로기 수용의 관점에서」,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266~269쪽.

16) 오세정, 「전설의 서술방식과 역사적 상상력-세 유형의 인물전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107쪽.

기장수> 설화는 전설인 것과 민담인 것이 각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문화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부·비주류에 놓이는 구비문학, 거기에 다 구비문학의 설화 내 하위 갈래 사이에서도 주변부·비주류에 전설이 위치한다. 나아가 연구 영역에 있어서도 전설은 중심이나 주류가 되지 못하였고, 연구 과정에서도 전설의 본령은 외면 받았다. <아기장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광포전설에 대한 연구는 신화적 성격이나 민담의 성격이 오히려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전설 연구에서 주된 대상이 되는 대상 텍스트가 광포전설이라는 사실은, 전설에 대한 연구가 전설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전설다운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전설에 대한 연구가 역설적이게도 전설의 본령이나 그 정체성과 오히려 유리되어 왔던 것이다. 전설이 갖는 의의나 가치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설을 둘러싼 각종 맥락과 담론의 전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를 바탕으로 전설에 대한 연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III. 전설의 지역성 탐색을 위한 방법론

1. 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설 텍스트 연구

설화의 체계 속에서 볼 때, 신화가 원형성·정치성·종교성이라는 유표적 자질이, 민담은 문학성·허구성·흥미성이라는 유표적 자질이 강조되어 왔고, 그러한 정체성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왔다. 그렇다면 전설은 과연 어떤 유표적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연구되었는가? 흔히 전설에 요구되는 필요조건으로, 앞에서 살폈듯이 시간·공간·증거물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말은 전설로 정체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사건과 연루된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다음을 보자.

| 제목 | 내용 |
|----------------------------|--|
| 자료1. 가창산 ¹⁷⁾ | 두 친구가 있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만을 수양하기로 약조하였다. 한 친구가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등극하자 이에 장원급제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문득 예전에 친구와 한 약속이 생각나서 산에 은거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가 벼선발로 마중 나오니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였다. 약속을 어기고 벼슬을 한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자, 친구는 이를 용서하고 서로 정담을 나누었다. 남편이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이 모습에 동화되어 가야금을 연주하였다. 두 친구는 그 연주에 감동하였다. 한 여인의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이 친구를 즐겁게 하였다고 하여 후에 사람들이 가창산(歌唱山)이라 하였다. |
| 자료2. 통미산 ¹⁸⁾ | 어느 날 증평의 한 갑부가 서촌 마을 앞의 작은 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그렇다면 산을 가져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갑부는 인부를 동원하여 밧줄로 산을 당겼고, 마을 사람들은 갑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이에 갑부는 더 많은 인부를 고용하여 자그마치 인부들의 길이가 30리나 뻗었다. 밧줄이 끊어지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나서야 갑부는 산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날 통미산 허리부분이 잘록하게 파인 것은 밧줄로 묶은 흔적이라고 전해진다. |

자료1은 제천에 전하는 전설로 가창산에 얽힌 이야기이다. 두 친구의 우정과 재회에 관한 사연이 산의 명칭과 결합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현재에도 실재하는 지역의 산을 증거물로 삼아 인근 지역이 주요 공간으로 등장한다. 또 이야기에서는 ‘연산군’과 ‘중종’을 통해 이야기의 형성 시점 내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증거물을 모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자료2는 청주에 전하는 전설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의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파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야기이다. 이 전설은 ‘통미산’이라는 증거물이 등장하며, 해당 증거물이 있는 공간도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반면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날’로 언급되고 있고

17) 충청북도 문화공보담당관실, 『傳說誌』, 1982.

18) 같은 책.

이야기의 배경으로 추리할 만한 세부정보는 부재한다.

이처럼 한국의 전설 텍스트에는 시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¹⁹⁾ 구술문화에서 시간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단지 특정 ‘과거’ 내지 특정 ‘시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전설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은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 자료1에서는 제천에 실재하는 가창산, 자료2에서는 청주 인근에 실재하는 통미산이라는 물리적 대상 내지 산이라는 실제 공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역에 밀착된 전설들은 이와 같이 절대 다수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산, 하천, 고개, 못, 바위 등의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들은 특정 공간에 위치하여 시간이 흐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승자들의 인식 속에 각인된 것이다. 제천 지역이나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정도를 제외하면, 가창산이나 통미산의 존재 여부나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삶을 토대를 둔 사람들은 이 산을 바라보고 그 산의 명칭을 기억하고 그것과 관련된 특정 사건과 사건이 주는 교훈이나 의미를 기억한다.

전설의 뚜렷한 특징은 바로 제한된 범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온, 구체적 공간을 점유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증거물 또한 해당 공간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거나 이 공간을 점유하거나 점유했던 것이다. 결국 전설의 유효적 자질은 바로 이러한 특성, 달리 말해 ‘지역성’이다. 따라서 전설에 대한 연구는 바로 전설의 정체성인 지역과 밀착된 구전되는 서사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19) 충북지역의 전설을 사례로 보자. 충북에 현재까지 조사된 지역 전설은 대략 1,467편이다. 이중 텍스트를 통해서 시간을 추정할 수 없는 것은 700편 정도이다. 50% 가까운 전설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충북지역 전설에 대한 대략적 통계는 다음 글 참고.

오세정, 「지역설화 연구 시론-충북지역 전설을 대상으로」, 『한국구비문화학회 201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화학회, (2015. 8. 28, 서울대학교)

오세정, 「충북지역 전설 연구-자료, 분류, 분포의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그렇다면 전설을 통해 지역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연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어떤 전설 텍스트를 놓고 여기에서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것들을 찾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전설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법이다. 이 경우는 연구의 전제가 지역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텍스트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대상 텍스트 선정이 중요한데, 지역성이 잘 구현된 전설을 선택하는 것이 연구에서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성 그 자체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것만을 놓고 보면 지극히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지역성에 대한 규정이며, 이는 가설적이며, 귀납적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 전설을 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난 지역성을 찾고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지역의 전설이 갖는 성격을 추출하고, 이것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해서 지역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지역성이 선형적으로 주어지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추출되는 차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이며 타당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특정 지역을 대단위와 소단위로 구분하고 단위별 비교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2. 지역전설의 의미화 모델: 음성군 효행전설의 사례

앞에서 논의한 전설의 연구의 방향을 고려하여, 전설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도구를 고민해 보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전설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분석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에서는 라스티에(François Rastier의 의소 개념²⁰⁾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 전설의 의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 François Rastier, et al., *Sémantique pour l'analyse, de la linguistique à l'informatique*, Masson, 1994.

기호로 형성된 텍스트의 내용면을 ‘의미소(意味素, *sémème*)’라고 하는데, 이 의미소는 최소 단위인 ‘의소(意素, *sémes*)’들로 이루어져 있다. 의소는 구조음운론의 최소 변별단위인 음소(音素)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의미도 여러 층위에서 단위들의 결합과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²¹⁾ 의소는 네 가지로 나눈다. 먼저 ‘내재의소’와 ‘외래의소’가 있다. 한 의소의 결정이 언어의 기능적인 체계에 대한 참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재의소라고 하고, 의소의 결정이 사회적 상황이나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외래의소라고 한다. 또 다른 체계로는 ‘중속의소’와 ‘중차의소’가 있다. 전자는 의미소들을 상위 부류로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후자는 서로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내재의소와 외래의소의 관계체계를 통해 지역 전설을 분석할 것이다. 특정한 대상을 증거로 하는 전설 텍스트들은 이 증거물을 대상으로 텍스트가 구성되고 의미화 되기 마련이다. 이 대상에 대한 내재의소와 외래의소에 대한 파악은 해당 전설 텍스트가 의미화하고 있는 부분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한 전설을 생성하고 전승해 온 전승집단 내의 약호 내지 약호화의 성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²²⁾

본 논의에서는 분석 사례로 충북의 ‘음성’지역의 효행전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전설군(群)을 선정한 이유는 충청북도라는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12개의 시·군의 전설들 중에 음성지역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음성군의 전설은 충북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인물전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효행을 다룬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²³⁾

21)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인간사랑, 2004, 59~60쪽.

22) 내재의소와 외래의소의 관계를 ‘언어 내적인 것 : 언어 외적인 것’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라스티에에게 있어서 언어 개념은 사회·문화·역사 등과 분리될 수 없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스티에는 랑그와 파롤에 대응하는 자신의 용어로 약호화의 내재적 심급(기능적 체계, 규범, 사용)과 발현된 현상(텍스트)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전자는 모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로 소쉬르의 랑그 개념에서 더 나아가 ‘사회어’나 ‘개인어’도 포함된다. (François Rastier, *Sémantique interprétative*, Puf., 1987, p.40, 최용호, 앞의 책, 72~73쪽에서 재인용.)

음성의 효행전설은 <정한철과 호랑이>, <민동량과 대호>, <이식후·진도 효 이야기>, <효자 정운영 이야기>, <남극년과 대호>, <신유의 효 이야기>, <이신과 충효문>, <효자 김순의 칠지효>, <이광하의 효>, <이양골>, <유기손·기진 형제의 효>, <민정현의 천근지효>, <효자 송일엽> 등 총 13편이다.²⁴⁾ 특이한 점은 효행전설 중 ‘호랑이’가 등장하여 효자의 선행을 강조하는 전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효를 다루고 있는 설화들에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²⁵⁾ 음성지역의 효행전설 13편 중 호랑이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충북의 지역전설 1,467편을 대상으로 전설 분류의 일반적인 기준인 증거물의 성격에 따라 ‘인간’, ‘자연물’, ‘인문’으로 나누었을 때, 인물전설이 787편, 자연물 전설이 984편, 인문전설이 240편으로 각각 28%, 56%, 16%의 분포를 보인다. 그런데 음성군의 전설은 인물전설이 42편, 자연물전설이 44편, 인문전설이 21편으로 각각 39%, 41%, 20%의 분포를 보인다. 이는 음성군의 전설이 다른 충북의 지역과 비교할 때 인물전설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말해준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충주는 277편의 전설 중 195편인 70%가 자연물전설이다. 충북지역의 북부권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단양은 산천이 빼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자연물 전설의 비율이 각각 70%, 56%, 66%로 평균 이상을 보여준다. 또한 속리산이 있는 보은의 경우 98편의 전설 중 자연물 전설이 67편으로 68%이 이른다. 괴산, 영동과 더불어 인물전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음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차적인 증거물을 대상으로도 지역의 전설이 갖는 지역성과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24) <정한철과 호랑이>, <민동량과 대호>, <효자 정운영 이야기>, <효자 김순의 칠지효>, <이광하의 효>, <이양골>, <유기손·기진 형제의 효>, <민정현의 천근지효> 등은 모두 『내고장 전통 가꾸기(음성군)』과 디지털음성문화대전에 실려 있다. <이식후·진도 효 이야기>, <신유의 효 이야기> 두 편은 『소이면지』에 실려 있고, <이신과 충효문>은 디지털음성문화대전에, <효자 송일엽>은 『감곡향토지』에 실려 있다.

충청북도 음성군, 『내고장 전통 가꾸기』, 충청북도 음성군, 1982.

디지털음성문화대전(<http://eumseong.grandculture.net/>)

편찬추진위원회, 『소이면지』, 소이면지 편찬위원회, 2011.

감곡향토문화연구회, 『감곡향토지』, 감곡향토문화연구회, 2003.

25) 한국인에게 있어서 ‘효’는 가장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윤리덕목이기에 그와 관련된 많은 설화들이 전한다. 효행설화는 주체(아들, 양아들, 딸, 며느리 등), 효행의 종류(약 구하기,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 구하기, 자기 몸을 훼손시켜 치료하기 등), 원조자의 종류(하늘, 신선, 호랑이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음성의 주변 지역인 충주나 진천만 보더라도 효행설화 일반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효행전설이 존재한다. 그런데 유독 음성군의 효행전설은 효자가 호랑이의 보호나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많다. 심지어 다른 지역의 경우 효자의 효행을 드러내기 위해 호랑이의 포악함이 강조된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

| 제목 | 내용 |
|------------------------|--|
| 자료3. 정한철과 호랑이 | 정한철이 고향에 갔는데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파서 개고기를 구해 오게 하였다. 건너 마을에서 개고기를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호랑이를 만났다. 정한철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호랑이가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정한철은 아버지에게 고기를 대접하니 아버지가 병이 나았다. |
| 자료4. 민동량과 대호 | 민동량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아프면 손가락을 잘라 치료할 정도로 효심이 깊었다. 어느 날 병든 아버지를 위해 피산에 약을 사러가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게 사정 이야기를 하자 호랑이가 오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민동량이 죽은 후, 그의 효행이 알려져 이를 들은 조정에서 관직을 주었다. |
| 자료5. 이식후 · 진도 효 이야기 | 이식후의 효행이 알려져 고종 때 정문이 세워졌다. 이진도는 아버지 이식후의 효행을 보고 자랐다.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홍시감을 구하러 나섰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이진도를 업고서 어느 외딴집에 내려 놓았다. 이진도는 집주인에게서 홍시감을 얻어 다시 호랑이를 타고 귀가했다. 홍시감을 먹은 아버지는 회생하였다. 이진도의 효행을 듣고 조정에서 정문을 내렸다. |
| 자료6. 남극년과 대호 | 남극년은 부친이 죽자 시묘(侍墓)살이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호랑이가 여막 밖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용감한 남극년은 겁내지 않고 호랑이를 나무랐다. 그런데 호랑이가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있어 보니 목구멍에 동물 뼈가 걸려 있었다. 빼어주자 호랑이는 시묘살이 3년간 옆을 지키고 벗이 되었다. 이후에도 남극년이 위험에 빠지면 용하게 알고서 나타나 구해주었다.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
| 자료7. 효자 김순의 칠지지효 | 김순이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친이 병석에 누자 약을 구하러 다녔다. 약을 구하려고 마을 옆 고개를 넘어가는데 썩 세 마리가 따라와서 김순이 들어가는 집마당으로 날아들었다. 쫓아도 날아가지 않아 잡아서 아버지께 드리니 병이 나았다. 어느 겨울 부친이 죽자 지극정성으로 시묘살이를 하는데, 추운 날씨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참배하다가 동상으로 손가락 일곱 개가 빠졌다. 칠지지효라고 한다. 김순이 시묘살이 하는 동안 낮에는 썩을 비롯한 새들이 위로해주고, 밤에는 호랑이가 보호해 주었다. |

| | |
|--------------------------|--|
| <p>자료8. 이양골(권국화)</p> | <p>권국화는 효자였는데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약을 구하지 못하다가 행인에게 장호원에 명약이 있다는 소식을 듣다. 한밤중이었으나 마음이 급해 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큰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 주었고, 약을 타서 나오자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다시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잉어회가 먹고 싶다 하자, 겨울 강에 구하러 나갔으나 얼음을 깰 수 없었다. 하늘에 기도를 올리자, 얼음에 구멍이 뚫리고 커다란 잉어가 나타났다. 부친에게 대접하니 병이 나았다. 사람들이 저수지에서 잉어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양골이라 불렀다. 권국화가 부친 시모살이를 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움막을 지켜주었다.</p> |
|--------------------------|--|

위 전설들은 모두 ‘효자의 효행에 감복하여 호랑이가 그를 돕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전설들에서 호랑이가 주요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효자를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중요도는 차이가 있지만 효자를 원조한다는 점, 효행을 강조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랑이의 의미는 결국 음성지역의 효행전설의 주요 특징이자 다른 지역 효행설화와의 변별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소 분석을 해보자.

‘호랑이’의 의미소는 /동물/, /맹수/, /포식자/, /힘이 센/, /날렵한/ 등의 의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의소들은 호랑이가 갖고 있는 내적 의미 요소, 즉 내재의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다른 상황적 의미를 갖게 된다. ‘호랑이’들은 모두 /사람과 소통 가능한/, /사람을 돕는/의 의소를 갖고 있다. 자료 3, 4, 5, 8에서는 호랑이가, 인간이 쉽게 오갈 수 없는 길을 빨리 안전하게 오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료 6, 7, 8에서는 호랑이가 인간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호랑이의 능력이 극대화된 사례로 자료5를 들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약으로 먹을 홍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로 나온다. 즉, 다른 설화에서 신선이나 하늘로 표상되는 초월적 존재의 역할을 호랑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랑이가 인

간에 비해 /신성성/, /전지전능/의 의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호랑이는 원래 한국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비인성(非人性)의/, /포악하거나 비천한/ 의소를 갖는데, 동시에 /비인성/의 의소, 즉 /동물성/은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의미를 갖기도 한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야만적이고 흉폭한 동물이며, 동시에 인간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는 /신성/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음성의 효행전설들 다수에서 호랑이라는 공포의 대상을 만나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지만, 주인공들의 효심에 감복하여 호랑이가 오히려 효자를 돕는 것으로 나온다. ‘호랑이’의 /동물성/조차 감화시킬 정도로 주인공의 효행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신성/의 존재인 ‘호랑이’가 효행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랑이의 도움으로 인해 효자들의 효행이 부각되거나, 호랑이가 감복한 혹은 인정한 효자이기 때문에 결국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성군의 호랑이 등장 효행전설에서 호랑이는 중요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며, 효행전설의 의미체계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요컨대 음성의 효행전설은 효자들의 효행을 ‘호랑이’를 통해 부각시키거나 그 효성을 인지하게끔 하는 장치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 음성의 수많은 전설 중에 위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호랑이가 직접 등장하는 이야기는 호랑이에게 홀린 부녀자가 죽고 집안이 망했다는 <망가리고개>,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였다는 <맹골리> 단 두 편뿐이다.²⁶⁾ 두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포악한 호랑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호랑이에 의한 피해를 다룬 이 이야기들은 실제 현상이나 사건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효행전설들은 모두 호랑이의 신성성이나 초월성 등의 비현실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만큼 음성의 효행전설의 주요한 특징이 호랑이를 통한 의미의 구성과 강조라

26) 두 전설 모두 디지털음성문화대전(<http://eumseong.grandculture.net/>) 등에 소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효행전설에서도 음성의 호랑이 등장 이야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음성지역에서처럼 절대 다수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전설 텍스트가 전승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자가 커뮤니케이션 (autocommunication)’의 형태로 생성·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트만Yuri M. Lotman에 따르면, 자가 커뮤니케이션은 ‘나-I’ 커뮤니케이션과 ‘나-I-그/그녀s/he’ 커뮤니케이션의 대립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된다. ‘나-I-그/그녀s/he’ 커뮤니케이션이 메시지 중심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나-나’ 커뮤니케이션은 텍스트가 단순히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약호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록문학과 비교해 훨씬 단순하며, 의미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쉬운 설화들은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전설은 단순히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그 텍스트를 통해 자신들과 그 지역에 대한 의미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약호가 되는 것이다.²⁷⁾ 음성의 효행전설들에서는 ‘호랑이’가 서사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이미지화되는지가 하나의 약호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음성의 지역민들이 ‘효’에 대해 갖는 사유나 강박관념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논의에서는 구비서사 갈래인 전설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설의 연구 방향·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 Yuri M. Lotman,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trans., Ann Shukma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p. 34.

우선, 전설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설과 관련한 관계의 체계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관계 체계를 통해 전설의 상위 체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전설을 포함하여 구비문학은 국문학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공식적 관점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통시적 관점에서 규정되었다. 구비문학은 기록문학 이전에 존재하던 고전문학의 영역에 속하며, 문자가 아닌 말이라는 불안정한 매체로 형성된 분화·독립되지 않은 체계인 것이다. 둘째, 권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심과 주변 내지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 체계를 통해 전설의 정체성을 고찰하였다. 기록문학과와의 관계에서 구비문학은 주변부·비주류에 놓이며, 구비문학의 설화 내 하위 갈래 사이에서도 주변부·비주류에 전설이 위치한다. 여기에 더해 전설 연구에 있어서 주된 대상이 광포전설이라는 점은 전설에 대한 연구가 전설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전설다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설에 대한 연구는 역설적이게도 전설의 본령이나 그 정체성과 오히려 유리되어 왔던 것이다.

전설은 다른 문학 갈래와 구분되는 정체성, 즉 뚜렷한 자기 지시성의 제한성을 가진다. 전설의 유표적 자질은 한 마디로 지역성이다. 전설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온 구체적 공간을 점유한 사람들이 형성·전승한 이야기이다. 또한 전설은 해당 공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증거물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지역 전설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전설의 정체성을 토대로 그 방향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논의에서는 전설 텍스트 분석을 위해 지역성을 먼저 전제하지 않고, 지역별 비교를 통해 전설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의 의미화 방식을 밝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분석 사례는 충북 음성군의 효행전설이다. 음성은 충북의 다른 시·군과의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인물전설이 많으며, 특히 효행전설이 많다. 그런데 이 전설군에는 호랑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음성의 효행전설은 효자들

의 효행을 호랑이를 통해 부각시키거나 그 효성을 인지하게끔 하는 장치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 전설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순한 텍스트로 보기 쉽지만, 전설을 형성하고 전승해 온 지역민들에게는 그 텍스트를 통해 자신들과 지역에 대한 의미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약호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전설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시적이고 시론(試論)적 성격이 강하다. 이후 논의에서는 보다 엄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가설을 보완하고 방법론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감곡향토문화연구회, 『감곡향토지』, 감곡향토문화연구회, 2003.
- 강유리, 「<아기장수> 설화 연구-이데올로기 수용의 관점에서」,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260~289쪽.
- 김흥규, 「소수집단 문학과 한국문학사의 전망」,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5~12쪽.
- _____,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11.
- 나송주, 「바스크 문학과 소수문학」, 『세계문학비교연구』 10, 세계문학비교학회, 2004, 27~44쪽.
- 송효섭, 「구술문학과 기호학」, 『구비문학연구』 13, 한국구비문학회, 2001, 1~28쪽.
- 오세정, 「전설의 서술방식과 역사적 상상력-세 유형의 인물전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93~122쪽.
- _____, 「지역설화 연구 시론-충북지역 전설을 대상으로」, 『한국구비문학회 201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2015. 8. 28, 서울대학교), 47~70쪽.
- _____, 「충북지역 전설 연구-자료, 분류, 분포의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185~212쪽.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정진농 편, 『미국 소수민족문학: 중심에서 주변으로』, 동인, 2010.
- 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13, 1986, 133~151쪽.
-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인간사랑, 2004.
- 최인학, 「한국전설의 유형과 motif의 연구」, 『한국학연구』 1, 인하대학 한국학연구소, 1989, 73~115쪽.
- 충청북도 문화공보담당관실, 『傳說誌』, 1982.
- 충청북도 음성군, 『내고장 전통 가꾸기』, 충청북도 음성군, 1982.
- 편집위원회, 『한국민속문학사전』 1·2, 국립민속박물관, 2012.
- 편찬추진위원회, 『소이면지』, 소이면지 편찬위원회, 2011.
- 한기욱, 「세계문학의 쌍방향성과 미국 소수자문학의 활력」, 『창작과 비평』 139호, 2008, 328~344쪽.
- Lotman, Yuri M.,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trans., Ann Shukma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 Rastier, François, *Sémantique interprétative*, Puf., 1987.
- Rastier, François, et al., *Sémantique pour l'analyse, de la linguistique à l'informatique*, Masson, 1994.
- 디지털음성문화대전(<http://eumseong.grandculture.net/>)

Rethinking identity and research methods of legend

Oh, Sejeong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identity and to explore the directions and research methods of the legend as oral narrative.

The identity of the legend can be obta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systems of those involved.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literature and written literature, the former, including legend, was defined only from diachronic perspective. Second,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power in the field of literature and literary activities, legend is located in the periphery and the minority. And paradoxically, in the field of legend research, the object of study does not reflect the identity of the legend.

The legend as a genre has a distinct identity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literary genres, that is locality. Legend is the story that people who have lived in sharing history and culture in a specific area have formed and handed down through evidence. Research of legend should be centered on the localities that appear in individual legend texts.

In this article, I did not presume locality for analysis of legend texts, I tried to ex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legends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regions, and to clarify the semantic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Legends are not a simple text that conveys a specific message, but a code that forms meaning and image about people and the area in which they have lived.

Key words : legend, locality, oral literature, oral narrative, sémes,
autocommunication, text, code, Eumseong Gun, filial legend

투고일 : 2017. 08. 27. / 심사일 : 2017. 09. 10. / 게재확정일 : 2017. 09. 16.